

김선용 이사장의 취임에 대한 아주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김선용 이사를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김선용 신임이사장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이사 재임기간인 2024년 2월 6일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예정이다. 김선용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향후 우리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믿고 기대한다. 김이사장이 성공적인 이사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김이사장은 설립자인 고 김우중 회장의 삼남으로, 설립자의 친족이 처음으로 우리 대학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설립자 가족이 이사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사립대학에서 목도된 설립자 가족에 의한 대학 사유화 사례들을 감안할 때 일말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무쪼록 몇몇 대학에서 발생한 대학 사유화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경계하기 바라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선친의 뜻을 잘 받들고 공익법인이라는 본질을 살려 아주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신임 이사장께 다음 몇 가지를 기대한다.

첫째로 법정부담금 100% 부담을 위시한 대학에 대한 투자 확충을 기대한다. 그동안에도 법인은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인 55%를 크게 상회하는 80% 전반(의료원을 제외해도 60% 후반)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 왔고, 이번 AU50 융복합기념관(가칭) 건립에도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법인의 수익사업 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지금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투자 확충을 요청드린다. 특히 법정부담금 100% 부담은 사학재단의 법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설립자의 철학에 맞게 주요 인사권을 총장에게 되돌리기를 기대한다. 국내 우수 사립대들의 정관을 통해 교수 및 주요 보직자의 임명권자와 임명절차, 법인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주요 보직자의 범위 등을 비교해보면 우리 대학은 인사권이 매우 법인에 치우쳐 있는 대학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방이사·개방감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 추천과정을 변경할 것을 기대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이사·개방감사를 추천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선임된 대부분의 개방이사·개방감사가 실질적으로 법인이 추천한 분들이었다. 이는 학교운영에 있어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과 무관한 외부인을 이사·감사로 참여시킨다는 개방이사제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 추천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면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

넷째로 교수들의 공식적 대표기구인 교수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법인과 교수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으나 이는 과거의 일이다. 대학발전에 있어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세 번의 총장선임에 있어 함께 제도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실행한 경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차제에 대학평의회 교수대표 선임권을 교수회에 되돌리는 등의 가시적 조치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기회의 확장을 기대한다.

끝으로 지난 10년간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이끌어 온 추호석 이사장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법인과 교수회 간 갈등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여 총장 선임에 있어 천거위원회제도를 정착시켰으며, 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학과 의료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였고, 법인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래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김선용 신임 이사장이 아주대학 발전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교수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판적 협력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23년 9월 14일

아주대학교 교수회 대의원회